

청년농업인의 작목·영농형태별 정책·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착요인 분석¹⁾

이상호*, 박승배**

*영남대학교 식품경제외식학과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e-mail: ecollee@yu.ac.kr

Analysis of the Perception and Settlement Factors of Young Farmers' Policies and Education by Crop and Farming Type

Sang-Ho Lee,* , Seung-Bae Park**

*Dept. of Food Economics and Service, Yeungnam University

**Dep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Yeungnam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와 후계인력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목별, 영농형태별 특성이 반영된 세부적인 정책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유형별로 정책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정착기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유형별 정착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작목 및 영농형태별로 다른 영농준비 단계를 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과 교육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연계성, 정착, 갈등 측면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을수록 주변과 관련한 신뢰도와 영농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며, 작목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목에 따라, 식량작물은 농업 외 일자리 정책 및 교육 등 단경기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과 교육 등이, 시설채소는 재배 기술 지원 및 스마트팜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고, 영농형태에 따라, 승계농은 생산 증대를 위한 영농 기술 지원 및 경영 교육 등이, 창업농은 정착금 및 생활비 등 자금 지원과 농업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세부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이 모색되어야 한다.

1. 서론

우리나라의 농업은 지속되는 고령화와 후계인력 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다. 40세 미만의 경영주 농가는 2000년에는 91,516호로 전체 경영주 농가 중 6.6%였지만, 2022년에는 7,036호로 전체 경영주 농가 중 0.69%로 감소하였다. 반면, 65세 이상의 경영주 농가는 2000년에는 451,758호로 전체 경영주 농가 중 32.65%였지만, 2022년에는 646,175호로 전체 경영주 농가 중 63.18%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유입 추세가 지속될 시, 2040년에는 농업 분야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76.1%까지 상승하고, 40세 미만 농가는 1.2%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이다.

농업 분야는 세부 유형에 따라 특성이 상이하다. 기계화율을 살펴보면, 논벼는 기계화율이 평균 99.3%이지만, 양파와 고추의 경우 각각 66.3%, 48.3%로 기계화율이 낮다(농

촌진흥청, 2021). 농업인력 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논벼는 2015년 약 70만 명에서 2025년 41만 명으로 감소하여, 농업인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5%에서 32.6%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채소는 2015년 31만여 명에서 2025년 39만 명으로 증가하여, 농업인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에서 31.1%로 증가할 전망이다(정진화, 2019). 영농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승계농은 가족으로부터 자산 및 기반을 승계받지만, 부모님과의 갈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창업농은 초기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특성이 있다(마상진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목별, 영농형태별 특성이 반영된 세부적인 정책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형별로 정책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정착기에 들어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유형별 정착요인을 분석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경영연구(PJ016714)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2. 분석자료 및 방법론

정부와 지자체 교육을 받는 청년농업인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총 220명이다. 설문 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 작목·영농형태별 영농 실태 및 의향, 정책·교육에 대한 인식, 정착요인 등으로 설계함.

작목은 식량작물과 시설채소로 분류하였다. 영농형태는 승계농과 창업농으로 분류하여, 승계농은 ‘부모·친인척의 가업을 승계받는 형태로 기반이 존재하는 청년농’으로 정의하였고, 창업농은 ‘농지, 기계, 시설 등의 기반이 없는 상태로 처음 시작하는 청년농’으로 정의하였다.

정착단계는 초기와 정착기로 분류하여, 초기는 ‘영농 시작 후 3년차 이하’로, 정착기는 ‘영농 시작 후 4년차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명목형 문항으로 ‘영농 정착 기준’, ‘영농 준비를 위한 준비기간’, ‘현 지역에 정착한 이유’ 등으로 설정하고, 연속형 문항으로는 ‘영농 정착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별 중요도 및 만족도’,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신뢰도’, ‘지자체의 농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설정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

		작목		전체
		식량작물 빈도(명) (비율 %)	시설채소 빈도(명) (비율 %)	
영농 형태	승계농	27(29.0)	20(15.7)	47(21.4)
	창업농	66(71.0)	107(84.3)	173(78.6)
전체		93(100.0)	127(100.0)	220(100.0)
정착 단계	초기	44(47.3)	78(61.4)	122(55.5)
	정착기	49(52.7)	49(38.6)	98(44.5)
전체		93(100.0)	127(100.0)	220(100.0)

설문결과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27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은 순서화된 종속변수로 인해 변수의 이산성과 다항선택성이 일반 선형회귀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어렵다. 따라서 변환 과정을 통해 회귀방정식에 적합하게 한 계량분석방법이다.

3. 분석결과

3.1 작목·영농형태별 영농준비 실태조사 및 의향

영농준비 실태 및 의향 분석 결과, 작목·영농형태별로 다소 다른 영농준비 단계를 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 정착 시 이용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사업 또는

서비스로, 승계농은 창업농과 달리 영농기술 및 경영 관련 교육과 연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 영농 준비 시 멘토로 승계농은 가족을, 창업농은 농업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영농 자금 준비 방법으로 식량작물은 시설채소와 달리 정책자금뿐 아니라 자부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농지 구입(임차) 방법으로 창업농은 승계농과 달리 친척이나 지인뿐 아니라 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사람을 통해 구입(임차)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 대상자가 생각한 영농정착 기준으로 창업농은 승계농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 획득을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3.2 작목별 정책·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작목에 따라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정책별 중요도에서는 “농업외일자리지원”, ‘기술경영교육지원’, ‘고용노동력지원’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책별 만족도에서는 ‘농촌보급자리 등 주거지원’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별 중요도에서는 ‘재배및사육’, ‘농산물가공’, ‘농촌경관및관광’, ‘스마트팜교육’, ‘자격증교육’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작목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작목별정책·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표본수=220)

정책별중요도						
정책 및 교육	작목	N	평균	표준편차	t(p)	
농업외일자리지원	식량작물	93	3.73	1.252	1.955 (0.052)*	
	시설채소	127	3.40	1.223		
기술경영교육지원	식량작물	93	3.94	0.918	-1.747 (0.082)*	
	시설채소	127	4.14	0.824		
고용노동력지원	식량작물	93	4.11	0.938	-1.696 (0.091)*	
	시설채소	127	4.31	0.802		
정책별만족도						
농촌보급자리등 주거지원	식량작물	93	2.75	1.139	2.366 (0.019)**	
	시설채소	127	2.40	1.049		
교육별중요도						
재배및사육	식량작물	93	3.97	0.949	-2.373 (0.019)**	
	시설채소	127	4.26	0.866		
농산물가공	식량작물	93	3.53	0.855	1.688 (0.093)*	
	시설채소	127	3.32	0.907		
농촌경관및관광	식량작물	93	3.24	0.925	2.236 (0.026)**	
	시설채소	127	2.95	0.933		
스마트팜교육	식량작물	93	3.33	1.087	-2.229 (0.027)**	
	시설채소	127	3.65	1.026		
자격증교육	식량작물	93	3.76	0.982	1.963 (0.051)*	
	시설채소	127	3.50	0.958		

*p<0.1, **p<0.05, ***p<0.01

3.3 영농형태별 정책·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영농형태에 따라 청년농업인 정책과 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정책별중요도에서는 ‘기본생활비지원’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책별 만족도에서는 ‘청년농맞춤형농지지원’, ‘융자상환완화’, ‘농촌인프라확충’, ‘영농기반지원’, ‘고용노동력지원’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별중요도에서는 ‘농기계조작’, ‘자격증교육’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별만족도에서는 ‘재배및사육’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 영농형태별 정책·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표본수=220)

정책별중요도					
정책 및 교육	영농형태	N	평균	표준편차	t(p)
기본생활비지원	승계농	47	4.17	0.963	-1.694 (0.092)*
	창업농	173	4.40	0.806	
정책별만족도					
청년농맞춤형 농지지원	승계농	47	2.98	1.343	1.727 (0.086)*
	창업농	173	2.65	1.114	
융자상환완화	승계농	47	2.91	1.231	2.523 (0.012)**
	창업농	173	2.44	1.122	
농촌인프라확충	승계농	47	2.94	1.223	2.312 (0.022)**
	창업농	173	2.51	1.076	
영농기반지원	승계농	47	2.89	1.289	1.806 (0.072)*
	창업농	173	2.53	1.199	
고용노동력지원	승계농	47	2.70	1.196	1.826 (0.069)*
	창업농	173	2.35	1.155	
교육별중요도					
농기계조작	승계농	47	4.17	0.868	2.349 (0.02)**
	창업농	173	3.84	0.838	
자격증교육	승계농	47	3.94	0.987	2.591 (0.01)**
	창업농	173	3.53	0.956	
교육별만족도					
재배및사육	승계농	47	3.72	0.926	2.683 (0.008)***
	창업농	173	3.33	0.883	

*p<0.1, **p<0.05, ***p<0.01

3.4 작목별 정착요인 분석

정착기의 청년농업인 98명을 대상으로 ‘주변과 관련한 신뢰도’와, ‘영농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식량작물은 ‘연계성측면’(향토지원 연계, 공동체 인적교류, 지역사회 참여, 지역농업과 협력체계)에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을수록 주변과 관련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경영측면’(자금, 기술, 경영, 판매), ‘연계성측면’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많을수록 영농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시설채소는 ‘정착측면’(농사일의 적응, 농지 구입, 주택 구입, 초기 생활자금)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을수록 ‘지역의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갈등 완화 및 화합

측면’(두 문화 갈등, 실패 두려움, 홀로서기 두려움)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을수록 ‘지역의 농업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갈등 완화 및 화합 측면’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많을수록 영농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표 3. 주변과 관련한 신뢰도

	식량작물						시설채소					
	지역의 농업인			지역의 주민			지역의 농업인			지역의 주민		
	β	Wald	유의 확률	β	Wald	유의 확률	β	Wald	유의 확률	β	Wald	유의 확률
연계성	-1.39	6.90	0.01	-1.67	8.64	0.00	0.78	2.56	0.11	0.30	0.37	0.55
정착	0.72	1.90	0.17	0.53	0.94	0.33	-0.72	1.48	0.22	-1.26	3.68	0.06
갈등	-0.07	0.03	0.87	-0.63	1.85	0.17	-1.70	13.43	0.00	-2.14	18.02	0.00
카이제곱	677.450***			171.813**			120.835			136.514		

*p<0.10, **p<0.05, ***p<0.01

표 4. 영농에 대한 만족도

	식량작물			시설채소		
	β	Wald	유의확률	β	Wald	유의확률
경영	-0.870	3.345	0.067	0.373	0.401	0.527
연계성	-1.659	9.350	0.002	-0.310	0.387	0.534
갈등	-0.414	0.938	0.333	-1.726	12.839	0.000
카이제곱	98.704			446.589***		

*p<0.10, **p<0.05, ***p<0.01

4. 결론 및 제언

첫째, 영농준비 실태 및 의향 분석 결과, 작목 및 영농형태별로 다소 다른 영농준비 단계를 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농이 승계농에 비해 영농 정착시 금전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고, 인적 네트워크와 농업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작목 및 영농형태에 따라 정책과 교육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 유형은 단경기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소득을 보조해 줄 정책이 필요하며, 시설채소 유형은 스마트팜 등 시설채소의 기술 고도화로 인해 기술적 지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농은 상대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정책과 교육은 전반적으로 창업농보다 승계농에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작목별 정착요인 분석 결과, 경영, 연계성, 정착, 갈

등 측면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을수록 주변과 관련한 신뢰도와 영농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며, 작목별로도 차이가 있다. 식량작물 유형은 인적교류,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농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연계성 측면과 자금, 기술, 판매 등 경영 측면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채소 유형은 농지 구입, 주택 구입, 초기 생활자금 등 자금 지원 확대와 농사일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내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식량작물은 농업 외 일자리 정책 및 교육 등 단경기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과 교육 등, 시설채소는 재배 기술 지원 및 스마트팜 기술 지원 등, 승계농은 생산 증대를 위한 영농 기술 지원 및 경영 교육 등, 창업농은 정착금 및 생활비 등 자금 지원과 농업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세부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00~2022.
- [2]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2021
- [3] 양석훈, 2022,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 지지부진…“내실 다지기 시급””, 농민신문
- [4] 이은용, 2020, “농식품부 ‘청년농육성 정책’ 실패…실효성 떨어져”, 농축유통신문
- [5] 정진화·임동근·김영희, 2019, 2020년~2025년 농업인력 수요 전망, 농촌경제 제42권 제4호(47-67)
- [6] 마상진·정은미·김경인, 2017, 고령화 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 연구보고서
- [7] 임병욱, 2021, 청년창업농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도 분석: 스마트팜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을 중심으로
- [8] 서원석, 2013, 순서형로봇모형을이용한 재개발사업 이전 주택유형별 재정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요소 분석